

# 『병자일기』 화자의 시간 인식과 기술 방식

김보현\*

## 【 차 례 】

- I. 서론
- II. 『병자일기』의 내용 분류
- III. 『병자일기』의 시간 인식과 화자 유형
- IV. 결론

## 국문초록

『병자일기』는 남평조씨가 63세부터 67세까지, 만 3년 10개월에 걸쳐 작성한 일기이다. 이 일기에는 1636년 12월 병자호란이 발발하여 피란을 떠나는 시점부터 피란지에서의 생활, 서울로 귀환한 후 남편과의 생활이 기록되어 있다. 본 연구는 텍스트에서 대상이 기술대상과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분석함으로써 『병자일기』가 비극적 경험을 의미화하는 방식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2장에서는 『병자일기』에 기술된 내용을 분류하고, 3장에서는 기술대상에 대한 화자의 시간 인식, 화자의 유형, 기술 방식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병자일기』 속의 시간을 과거와 현재라는 개념적 시간, 사적이거나 공적 시간인 관계적 시간, 일상과 비일상이라는 경험적 시간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 시간들은 현재의 일상·비일상적 시간, 공적 시간을 기술하는 화자와 과거의 비일상적 시간과 사적 시간을 기술하는 화자로 재통합된다. 또한 동종화자는 일상적 시간과 공적 시간을 기록적으로 보여주고, 이종화자는 주기적 시간과 사적 시간을 서술적으로 형상화한다. 이러한 논의는 『병자일기』를 역사와 개인의 비일상적 시간들이 역사와 개인의 일상적 시간 속에 구현된 텍스트임을 보여준다.

---

\* 서강대학교 시간강사

열쇠어 : 『병자일기』, 일상성, 비밀상성, 동종 화자, 이종 화자, 인지주의

## I. 서론

『병자일기』<sup>1)</sup>는 시북(市北) 남이웅(南以雄)<sup>2)</sup>의 부인인 남평조씨(南平曹氏, 1574~1645)가 63세부터 67세까지, 만 3년 10개월에 걸쳐 작성한 일기이다. 이 일기는 1636년 12월 병자호란이 발발하여 피란을 떠나는 시점에서 시작하여, 피란지로 이동하는 도중, 피란지에서의 생활, 심양(瀋陽)에서 돌아온 남편과의 서울 생활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병자일기』는 작자와 연대가 명확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었는데,<sup>3)</sup> 국문학 분야에서는 한글 일기이자 실기 문학, 전란 문학, 여성 문학의 관점에서 주목하였다. 연구자들은 『병자일기』에 대해 한편으로는 “사가 부녀자가 병자호란이라는 정치적 사건을 4년 가까운 기간에 걸쳐 기록한 대규모 작품”,<sup>4)</sup> “병자호란이라는 국가 위란 시기를 당하여 당대 최고위층 양반 부인의 피난 남하 여정의 생생한 기록”,<sup>5)</sup> “역사의 소용돌이를 증언하는 전쟁체험기”<sup>6)</sup> 등으로 평가한다. 또 한편으로는 “일상생활의 주변에서 일어난 잡다한 일들을 기록한”,<sup>7)</sup> “주체적 생산자이자 인간 경영자로서의 조선 여성을

1) 원제목은 『崇禎丙子日記』인데, 일반적으로 『丙子日記』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텍스트는 박경신이 역주한 『병자일기』와 이 책에 실린 원문 「송정병자일기」이므로, 『병자일기』로 명명하였다. 또한 발표문에 제시된 텍스트는 편의상 현대어로 역주된 「병자일기」에서 발췌하였다.

2) 이괄의 난에서 공을 세워 춘성군으로 봉해짐. 정묘호란 때 안주성에서 사망한 남이홍과 사촌.

3) 『병자일기』는 국어학의 분야에서 17세기 한국어 연구 자료로, 역사학이나 사회학 분야에서는 17세기 한국사회의 연구 자료나 병자호란 연구 자료로 주목받고 있다.

4) 박경신, 「<병자일기> 연구」, 『국어국문학』 104, 국어국문학회, 1990, 158쪽.

5) 문희순, 「남평 조씨 3년 9개월의 가정과 인간경영-『병자일기』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75, 한국언어문학회, 2010, 351~352쪽.

6) 안숙원, 「역사의 총체성과 여성담론-남평曹氏의 『丙子日記』를 대상으로」, 『여성문학연구』 2, 한국여성문학회, 1999, 195쪽(191~227).

모습을 볼 수 있는 작품”,<sup>8)</sup> “가정일지적인 성격과 내면일기적인 성격을 동시에 지닌”<sup>9)</sup> 작품으로 평가한다. 말하자면 텍스트의 장르적 특성이나 실기 문학으로서의 혹은 여성 문학으로서의 문학사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면서, 『병자일기』를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는 체험기 혹은 개인의 일상적 삶을 기록하는 일기라는 두 가지 위상을 지닌 텍스트로 평가하는 것이다.

텍스트에 대한 이상과 같은 양분된 평가는 『병자일기』의 이중적 특성은 인정하면서도, 이중성 자체가 드러내는 『병자일기』의 세계인식을 적극적으로 살피지는 않고 있다. 『병자일기』의 복합적 성격은 일기라는 장르를 대하는 화자의 인식, 일관된 형식으로 일관된 내용을 기록하겠다는 의식의 부재 등에서도 기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그러한 일관적이지 않은 기술내용과 태도가 『병자일기』의 세계 인식을 드러내는 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병자일기』의 화자가 자신의 개인적 비극을 대하는 방식과 사회적 비극을 대하는 방식은 뚜렷이 구별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병자일기』의 비극에 대한 비일관적 태도를 분석함으로써 『병자일기』 화자의 세계인식과 지향성을 살피고자 한다.<sup>10)</sup>

언어가 심리적, 문화적, 사회적, 생태학적 관계를 반영하며, 각 영역을 인지하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고 전제한다면,<sup>11)</sup> 『병자일기』는 기록자의

7) 박경신, 앞의 논문, 158쪽.

8) 문희순, 앞의 논문, 351~352쪽.

9) 정우봉, 「남평조씨 『병자일기』의 성격과 작품공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12, 219쪽.

10) 정우봉의 논의는 『병자일기』의 화자 태도가 지닌 복합적 특성을 살핀 주목할 만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병자일기』의 실기적 성격과 일기적 성격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면서, 『병자일기』의 개성적 면모가 상이한 두 자아에 의한 독특한 작품공간의 창출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화자를 일상을 기록하는 일상의 시간을 따르는 외면적 화자와 감정을 기록하고 꿈과 같은 비일상의 시간을 따르는 내면적 화자로 구분하고, 두 자아가 서로 다른 시공간과 결합하고 중첩함으로써 독특한 작품 세계를 창조했다는 것이다(231~231쪽). 다만, 『병자일기』의 자아를 가문 내의 제반 일을 관리하고 통솔하는 외면적 자아와 고통받고 슬퍼하는 감정을 드러내는 내면적 자아로만 이분하여,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11) 임지룡, 『인지의미론』, 탑출판사, 1997, 35쪽.

심리적, 문화적, 사회적, 생태학적 관계를 반영하는 언어 기록물로서, 특정 경험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개념화하고 범주화하는 방식을 드러낼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병자일기』에 기술된 내용을 분류하고, 기술대상에 대한 표현 양상을 비교할 것이다. 이는 텍스트가 현재와 과거의 일상과 비일상, 사적 대상과 공적 대상을 드러내는 방식을 통해, 『병자일기』 화자의 세계에 대한 인식의 틀을 추론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텍스트에서 대상이 기술되는 방식과 이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분석함으로써 『병자일기』가 비극적 경험을 의미화하는 과정을 구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병자일기』에 기술된 내용을 분류하고, 3장에서는 기술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이들이 표현되는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텍스트가 비극적 현재와 과거를 재현하는 방식을 살필 것이다.

## II. 『병자일기』의 내용 분류

『병자일기』의 저자 남평조씨는 인조 14년 병자호란이 터지자 서산으로 피란을 떠난다. 당시 강화도 유수였던 남편 남이웅은 인조를 호종(扈從)하여 남한산성으로 피신했다가, 정축년에 소현세자가 심양(瀋陽)으로 잡혀가자 우빈객(右賓客)의 직책을 맡아 함께 떠난다. 남이웅은 무인년 6월에 서울로 돌아오는데, 이때서야 피란 갔던 남평조씨도 서울로 귀환한다. 현재 남아있는 『병자일기』는 이상의 상황을 3년 10개월간 기록한 것으로, 강화도에서 출발한 병자년 12월 16일부터 여산에 도착한 정축년 3월 17일까지(피란도중기), 여산에 체류한 정축년 3월 18일부터 무인년 1월 26일까지와 충주에 체류한 무인년 2월 1일부터 서울에 도착한 6월 2일까지(피란체류기), 6월 2일에 서울 본가에 도착한 이후부터 기록이 끝나는 경진년 8월까지(서울귀환기)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sup>12)</sup>

12) 『병자일기』의 이동경로에 대해서, 박경신은 이 순환의 기록을 체류한 장소에 따라 난중 피란기, 서산 당진 체류기, 충주 체류기, 서울 귀환기로 나누고, 문희순은 연도순으

필자가 『병자일기』를 이상과 같이 세 시기로 나누는 것은 각 시기별로 화자가 기록하는 대상이나 기술 태도에서 차이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화자의 변화는 『병자일기』의 화자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화자가 세계를 범주화하는 방식과 그 변화까지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필자는 이를 명확히 기술하기 위해, 『병자일기』의 각 시기의 한 부분들 피란 도중기는 병자년 12월(ㄱ), 피란 체류기는 정축년 12월(ㄴ), 서울 귀환기는 무인년 12월(ㄷ)을 분석 사례로 비교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매일 발생한 일이나 제사와 생일, 다례와 같은 주기적 일들을 날짜별로 기록하고 있는 『병자일기』의 서술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게다가 각 시기에 따라 기술하는 일들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 같은 달을 비교하는 것이 화자의 변화 지점을 확인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각 12월의 내용은 크게 세 개의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일기라는 양식적 특성과 관련된 요소, 둘째는 일기의 내용인 기록일에 수행한 행위들, 셋째는 행위에 수행한 행위에 대한 화자의 태도이다.

## 1. 일상성과 비일상성을 변별하는 형식 - 날짜와 날씨

『병자일기』에서 일기의 양식을 표시하는 항목은 표1에서처럼 날짜와 날씨이다.<sup>13)</sup> 먼저 날짜의 기술적 특성을 살펴보면, 날짜 표기 방식의 경우는 대체로 “삭(1일), 망일(15일), 십구, 념삼(23일), 회일(30일)”등과 같이 한자어를 사용하고, “열여더랜날(18일), 스프흐라스프이트(21일·22일)”과 같이 고유어는 간혹 등장한다. 기록 주기의 경우는 일자별이라고

---

로 이동 경로를 상세히 정리하였다. 정우봉의 경우는 『병자일기』에 나타난 이동경로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각 시기를 작품 내적 공간과 관련하여 논의했다(박경신, 문희순, 정우봉의 앞의 논문 참조).

13) 표1, 표2와 표3에서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표의 내용을 현대어로 정리 제시하였다. ( ) 안의 숫자는 날짜를 표시한 것이다. 남평조씨, 『병자일기』(역주 박경신, 나의시간, 2015) 13~16쪽과 201~202쪽에서 병자년, 55~60쪽과 221~223쪽에서 정축년, 114~117쪽과 245~247쪽에서 무인년의 현대역 및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ㄱ) 병자년에는 날짜 미상인 기록 하나와 16일부터 26일까지 12일 간을 기록하였는데, 16일 이전의 기록은 확인할 길이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26일 이후 4일 동안은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ㄴ) 정축년에는 “일々이일(21일·22일), 념삼념스(23일·24일)”와 같이 묶어서 기록한 경우는 있어도 기록하지 않은 날은 없다. (ㄷ) 무인년은 묶어서 기록한 날도, 기록하지 않은 날도 없다. 이상과 같이 『병자일기』는 피란 도중인 병자년 12월 16일부터 정축년 3월 17일(정축)까지는 (ㄱ)과 같이 기록하지 않은 날이 잦은 반면, 여산에 체류한 정축년 3월 18이후부터 서울에 귀환하여 끝나는 날까지는 매일 일어난 일을 주로 일자별로 기록한다. 묶어서 기록하거나 기록하지 않은 날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피란도중처럼 며칠을 이어서 기록하지 않은 경우는 없다.

[표 1] 일기의 양식 표시

날 짜	(ㄱ) 병자	십육일 십칠일, 열 여드렛날, 십구, 이십일, 스무하루 스무이틀, 념삼, 념사, 념오, 이십륙
	(ㄴ) 정축	을미삭, 초이, 초삼, ~열하루, 열사흘십사~망일, 십육, ~념일, 일일이일, 념삼념시~이십칠, 념팔~회일
	(ㄷ) 무인	기축삭, 초이, 초삼~열하루, 열이틀, ~망일, 십육, ~십구, 념일, 하루, 이일, 념삼~이십칠, 념팔, 념구, 회일
날 씨	(ㄱ) 병자	대설(19), 서리와 눈이 말 위에 온통 얼어(17), 대설이라 거기서 묵다(21·22), 당진으로 가려했더니 아직 비도 오고(24)
	(ㄴ) 정축	청(1, 4, 5, 9, 10, 11, 12, 13·14, 15, 16, 17, 20, 25, 27, 28, 29), 초청한(2), 청한(3, 7·8), 음우종일(6), 야설주청(17), 청온(18), 조무(19), 청흑음(21·22), 우설교작(23·24), 만설(26), 설(30) 조무 지척을 분별하지 못하겠다(19), 우설 교작하다(23·24)
	(ㄷ) 무인	음(2), 야우조음(3), 청한(4, 5, 8, 16, 17, 22, 23, 24, 25, 26, 27, 28), 극한(5), 조야에 대설(7), 종일음설(9), 음(10), 조음만청(11), 야설조우종일설(14), 새벽부터 우설(15), 음한(18), 청(19, 20, 29, 30), 야설조설(21) 1일 - 표시 없음, 12일, 13일 - 판독불가

날씨와 관련해서는 도중기 대 체류기·귀환기로 확연히 이분화된다.

(ㄱ) 피란도중기에는 일기의 양식에 해당하는 날씨 표시는 19일 단 하루이고, 나머지는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17일의 날씨는 출고 험난한 피난길에 대한 서술이며, 21·22일과 24일의 날씨는 종 한늘과 유생원 댁에 연이어 기거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것처럼 보인다. (ㄴ) 체류기에는 기록하는 날짜마다 날씨 표시가 모두 나타나며, (ㄴ) 23·24일처럼 날씨만 기록된 부분도 있다. (ㄷ) 귀환기도 (ㄴ) 체류기와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기축삭일(1일)을 제외하고 모든 날에 날씨가 표시되었으며, 14일처럼 다른 내용 없이 날짜와 날씨만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sup>14)</sup>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병자일기』의 날짜와 날씨 표시는 기록된 날이 화자에게 어떤 유형의 날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매일 수행한 일들과 그날의 날씨를 기록하는 행위는 화자에게는 일상적 범주에 속하는 행위이며, 그러한 일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 즉 ‘기록’ 행위를 실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화자에게 비일상적 일정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2. 일상성과 비일상성을 변별하는 내용 - 화자와 인물의 행위

표2는 화자와 인물의 행위들을 분류한 것이다. 행위들을 크게 2개의 부류로 나누었는데, 첫째는 일상적 행위이고 둘째는 비일상적 행위이다. 일상적 행위는 그 주기가 길건 짧건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비일상적 행위는 반복적 행위와 일회적 행위로 나눌 수 있지만, 반복적 행위라 하더라도 특정 기간에만 수행되는 행위이므로 특정 기간을 한 묶음으로 묶는다면 1회성을 띠다고 볼 수도 있겠다.

14) 정축년 1월(1월1일, 1월 5일 음(흐렸다))과 같이 피란 도중에도 날씨만 기록된 부분이 있는데, 이때는 날씨를 기록하지 않는 날이 많으므로 (ㄴ)의 날씨 기록과 같은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을 듯하다.

[표 2] 화자와 인물의 행위들

일상	(ㄱ) 병자	없음
	(ㄴ) 정축	- 제사 : 정조제물 준비(21·22), 대기일(시어머니, 29)이라 형님댁에서 제사를 지낸다.
	(ㄷ) 무인	- 남편 일정 : 임금님께 숙배하시고 사은하신 후 피협(15), 대궐에 가 계시다가 이경 말에 들어오심(18), 사헌부에 좌기하셨다가 저녁에 들어오심(20), 새벽에 대궐에 문안하러 가셨다가 이어서 내의원에 좌기하시고 저물게야 들어오심(21), 아침 식사 전에 내의원에 좌기, 저물어 들어오심(22), 아침 식사 전에 내의원에 좌기, 저문 후에야 들어오심(23), 내의원 좌기로 아침 식사 전에 가셨다가 저문 후에 들어오심(24), 저녁에 남은 옥사 때문에 의금부에 가 계시다가 밤중에 들어오심(25), 새벽에 또 의금부에 가 계시다가 삼경에야 들어오심(26), 날이 채 밝기 전에 의금부에 가 계시다가 명패를 받고 대궐에 들어가 임금님을 뵈옵고 저물게야 들어오심(27), 국기로 인해서 죄인 신문하기를 중지하심(28), 피협하시고 식사 후에 오심(그믐날) - 접객 : 이승지와 와서 술을 잡숨(16), 정전익이 다녀감, 연양군이 오심(17), 서참봉이 와서 식사함(19), 새벽에 연양군이 다녀가심(27), 목판사, 남도사, 남두룩이 오후에 오셔서 다들 집에서 주무심(28), 도사가 와서 밤이 들도록 이야기 하면서 약주를 잡숨(그믐날) - 제사 : 납향제(19), 대기를 지냄(시어머니, 29)
비상반복	(ㄱ) 병자	판관댁 종을 만남, 판관댁을 만나서 마을로 들어감(날짜미상), 날이 새도록 길을 감(17), 유생원댁 만남(18), 유생원댁과 헤어짐(20), 사촌들이 친절하고 정답게 대접함, 심진사의 별실이 다녀감, 심진사가 찾아와서 문안을 드림, 영감의 벗님네가 극진히 대접해줌(26)
	(ㄴ) 정축	- 집안관리 : 애남이가 와서 평안도 공물을 받지 못했고, 종들 중 죽은 자는 없다고 말함(15). - 접객 : 이민화 씨가 문안을 읊(16), 신평 유생원 오라버님이 오고 감, 보령 김진사(동생 아들)가 오고 감(17, 18), 형님이 읊, 두룩이가 감(19), 중명 씨가 감(20) - 선물 : 유생원오라버니(17), 보령김진사(17), 전주판관, 전주부윤, 여산원님, 금산 사촌(21·22), 고을 원님(27), 금구 현현 권현(29)에게 식료품을 받음.
	(ㄷ) 무인	없음
		- 급히 청풍으로 가라는 영감의 편지를 받음(날짜미상)



비 상 일 회	(ㄱ) 병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덕생이가 아이를 낳음(함께 피난하지 못함, 16)</li> <li>- 쌀괘를 묻음(16)</li> <li>- 종 여덟 명과 난추, 천남이가 길을 잃음, 종들을 찾으러 다님, 잃었던 사람을 찾음(17)</li> <li>- 도적들이 청풍으로 향했다는 말을 듣고 청풍 길을 포기함(17)</li> <li>- 난추가 병이 나고, 감찰이 난추에게 침을 놓음(18)</li> </ul>
	(ㄴ) 정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편봉양 : 심양으로 가져 갈 물건들을 챙김(21·22)</li> <li>- 꿈꾸다 : 꿈에 영감을 봄(21·22, 25, 26), 별좌(아들)을 봄(25),</li> <li>- 남편소식 : 천남이가 들어와 심양 다녀온 소식을 들음(26)</li> </ul>
	(ㄷ) 무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덕남이 집에 불이 남(15), 경상도에서 역적이 났다고 분발이 오고 명패가 옴(18).</li> <li>- 청배 이정자 댁에서 혼인(24)</li> </ul>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듯, (ㄷ) 서울귀환기는 시기적으로는 일기의 후반부를 구성하지만 『병자일기』 화자가 평상시 수행하는 행위들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다. (ㄷ)에 기술된 화자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일들이 주로 기술되어 있다. 기술되는 내용 중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 것은 남편의 일정을 기록하는 것이다. 화자는 매일 남편의 출퇴근이나, 남편의 방문지나 만난 사람 등 남편이 행한 일들을 간략히 기술한다. 두 번째로는 조선시대 양반가의 여성들의 주 임무 중 하나였던, ‘접빈객’, 즉 손님 접대에 대한 것이다. 집으로 찾아온 손님들이 마신 술잔 수를 기록한 것으로 보아, 화자는 손님들을 일일이 접대하는 일에 정성을 쏟는다. 마지막으로 ‘봉제사’, 매년 같은 달 같은 날에 찾아오는 생일 다례를 지내고, 기일을 받들어 제사를 지내는 일이다. 이 세 가지 일은 반복적이고 주기적이다. (ㄷ)에 기술된 그 밖의 사건은 득남의 집에 불이 난 일, 역적 사건이 터졌다고 분발(分撥)과 명패(名牌)가 와서 남편이 입궐한 일이다. 이 일들은 『병자일기』에 기록된 것 중 일회적인 사건에 속한다.

(ㄷ) 서울귀환기에서 도출한 일상성의 준거에 따라 (ㄱ) 피란도중기와 (ㄴ) 피란체류기를 살펴보면, 이 시기들은 (ㄷ)과 상반되는 특성을 드러낸다. 표2처럼 행위들을 일상성과 비일상성으로 나누는 이유를 행위가 수행

된 시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시기를 배제한다하더라도 각 행위들은 구별된다. (ㄷ)의 행위와 (ㄱ)과 (ㄴ)의 행위는 화자와 화자의 행위를 촉발하는 인물의 관계에서 구별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ㄱ)에 기록된 주된 일들은 피란 도중 만난 사람과 헤어진 사람들, 피란 도중 같이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다. (ㄱ)에 기록된 인물들은 화자가 피란 도중 만난 안주인들, 화자가 용무가 있거나 화자를 문안 온 친인척들, 화자의 명령을 따르는 하인들이다. (ㄷ)의 행위가 남편이나 집안을 대리하여 손님을 맞이하고 배웅하는 일이라면, (ㄱ)의 행위는 화자가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화자 중심의 만남과 이별인 것이다.

(ㄴ)에 기록된 일들은 하인들에게 보고 받은 집안 상황, 피란지로 찾아온 손님들과 그들이 가져온 선물 현황이다. 이 기록은 남편이 부재한 상태에서 화자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생활과 생계를 다스리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이 기록은 화자의 피란생활이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안정될 수 없는 상태임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ㄴ) 피란체류기의 화자에게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꿈과 제사와 관련된 기술이다. 꿈에 대한 언급은 극도로 불안한 시기인 병자년 12월 16일부터 정축년 5월까지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sup>15)</sup> 서울로 귀환한 시기에는 피란체류기에 비해 빈도가 낮다는 점, 부정적인 언급이 많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피란지에서의 체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매년 같은 날에 치르는 제사를 받드는 일은 빠짐없이 기록되지만, 기록의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체류기의 화자가 꿈과 제사에 관해 기술하는 것은 서로 연동되어 화자의 심리적 상태를 표출하는데 기여한다.

정리하자면, 서울귀환기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일상은 남편 봉양, 접빈객, 봉제사로 구체화되어 있다. 화자의 남편이 화자 생활의 중심임을 증명하듯, 남편의 일과에 대한 기록이 주를 이루고, 남편을 찾아온 손님들

15) 남평조씨는 병자년 12월에 출발하여 정축년 3월에 여산에 도착하였고, 윤4월 중순에 4간의 집을 지었다.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이 5월이 다 되어서야 갖추어졌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대접하고, 제사와 생일을 받들고, 농사와 같은 집안일을 기록한다. 이러한 기록은 일상의 화자가 남편과 가문을 따라 움직이며, 남편 및 가문과 일체화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피란도중기인 병자년 12월부터 정축년 3월까지 주로 기술하는 것은 피란도중기라는 비일상적 상황에 발생한 사건들이다. 대표적 일상적 행위인 제사나 생일은 나타나지 않는다. 기록 자체가 빠진 날(시모의 기제, 모친의 제사, 친시부의 대기)도 있지만, 다른 상황은 언급하면서도 제사 생일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1월 13일 증조부 기제사, 2월 19일 시사, 3월 21일 양외조부 기제사, 3월 25일 영감의 생일). 피란체류기의 행위들은 남편의 부재라는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빈객, 봉제사에 대해서는 서울 귀환기와 유사한 듯 보인다. 그러나 제사나 생일 즈음에 기술되는 화자의 태도에서는 서울귀환기와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 3. 일상성과 비일상성에 대한 화자와 인물의 태도

표3은 병자년, 정축년, 무인년의 각 12월에 나타난 화자와 인물들의 태도를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표 3] 화자와 인물의 태도

긍정	(ㄱ) 병자	화자	감격스럽기 그지 없었다(24), 하도 극진히 대접하여 주시니 못내 감격스러웠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형님 댁을 우리와 똑같이 대접하여 주시니 더욱 기뻐다.(25), 거리가 거의 십리나 되는데도 찾아주시니 고맙다(26)
		인물	사람들이 모두 고마워하였다(25)
	(ㄴ) 정축	화자	이참의를 만나보니 반가우며 그곳 소식이나마 자세히 들으니 시원하다(12), 꿈에 영감을 뵈옵고 모두들 만나보니 흐뭇하였다(15), 김진사가 오니 반갑기 말할 수 없다(17), 아들자식이라 거기까지 가서 뵈고 오니 귀하게 생각된다(26)
		인물	형님이 몹시 기뻐하며 내려오라고 함(10)
	(ㄷ) 무인	화자	없음
		인물	없음

부 정	(㉑) 병자	화자	갑갑하고 민망하기를 어찌 다 말하랴(17), 남한산성에서의 기별 은 아득하니 애가 끊어지는 듯하여 망극망극하다(26)
		인물	- 부정적 : 일이 급하게 되었으니 짐붙이는 생각지도 말고, 밤낮 을 가리지 말고, 덕생이는 그렇게도 울면서(16), 온 집안사람들 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애를 태웠다, (길을 잃은 사람들)애가 타서, (함께 피란길에 오른 사람들) 서로 애를 쓰며 지내고(17)
	(㉒) 정축	화자	생각하면 아득하고 가슴에 쌓였으니 어리석은 듯 모르는 듯하여 세월을 보내나 벌써 이해도 다하였다.(10), 내 처지가 서글프기 그지없다(11), 나는 위로 어머니도 아니 계시고 아래로 자식도 하 나 없으니 무슨 일을 당하여도 아니 슬프고 아니 서러운 일이 없 다(21·22), 한편 흐뭇하고 한편으로는 설운 정이 끝이 없어서 '다시 보이고 말이나 해보아라'하고 울며 말하나 다시 잠을 이루 지 못하고 매양 가슴속을 사르게 만드니 어느 물로 이 가슴속의 불을 끄랴(25), 꿈에 영감을 뵈옵고 밤이 깊도록 기운이 편치 않 다, 말을 목이 메고 눈물이 흘러 제대로 묻지도 못하다. 안타깝기 가없다(26), 이해는 사람이 사는 것 같지도 않아서 반은 빗겨지나 는 듯, ...회포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다(28), 새로이 슬프오며(29), 새삼스러이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12월 그믐날)
		인물	없음
	(㉓) 무인	화자	그런 일이 없다(불난 사건, 15), 놀랍다(역적 사건, 18), 민망하다 (26), 슬프다(그믐날)
		인물	없음

(㉑) 피란도중기의 화자는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반복적으로 기술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중점적으로 기술한다. 12월16일, 출산일이 임박하여 함께 피란을 가지 못하게 된 덕생이는 “그렇게도 울면서” 함께 가고자 애원한다. 12월 17일 피란길에서 사람들을 잃어버리자 온 집안사람들은 “발을 동동구르”고 “애를 태운”다. 길을 잃은 사람들도 “애가 타서” 마을 앞까지 와서 일행을 찾는다. 이러한 사람들의 태도와 달리 화자 자신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적 상태는 “갑갑하고 민망하다”는 말로 단 한번 표현하고 만다.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의 경우는 정반대다. 피란을 도와준 친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태도는 “사람들이 모두 고마워하였다(25일)”로 단 한번 표현한 것에 비해, 화자

자신의 심적 상태에 대해서는 “극진히 대접하여 주시니” “못내 감격스러웠”고 “기뻐다”는 것, “거리가 거의 십리나 되는데도 찾아주시니 고맙다”고 반복적으로 표현한다.

게다가 화자는 기록 내용의 참혹함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 표출을 극도로 절제하는 것처럼 보인다. 화자가 병자년의 기록에서 자신의 감정적 상태를 그나마 강렬하게 드러내는 지점은 12월26일의 일기로 병자년의 마지막 기록이다. 화자는 남한산성에서 기별이 없으니 “애가 끊어지고”, “망극망극하다”고 표현한다. 이것은 남편 및 조정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피란을 떠난 후 자신의 감정적 상태를 드러내는 병자년의 유일한 기록이다. 피란지로 이동하는 동안 화자의 고생이 점점 심해졌을 것임은 짐작가능하다. 그럼에도 3월 말 여산에 정착하기 전까지 기록 대부분은 정보전달적이다. 피란 도중 화자의 감정 상태를 극명하게 감지할 수 있는 지점은 정축년 1월 죽도에서 잠시 머물 때이다. 이때 화자의 일행들은 가까스로 대나무 생태잎으로 바닥을 깔고, 지붕을 이은 움막을 만들고, 한 움막에 열네 사람이나 들어가 지낸다. 죽도는 물이 없는 무인도라 눈을 굵어모아 녹여서 먹고, 바닷물예다 양식을 씻어 밥을 해먹었으며 그릇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남한산성을 바라보며 통곡하고 싶을 뿐이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참으며 살아 있을 날이 얼마 되지 않으니 나라의 일만 걱정된다고 말하고 있다.<sup>16)</sup> 화

#### 16) 정축년 정월대건 입인

십칠) 아적의물ㄹ의느려대를ㄹ리오고지여간춘밥을일헝이술々이느화먹고통이과어산이대를비고연장이업서갓가스료이간길의예문흐나홀내여명막의집ㄹ티움홀무드니청대넙실고대넙흐로니여세딕느헝취열네히그안해드려새아고종들은대틀뵈어막을흐여의지코디내나물업슨무인되래대수피가눈을그러노겨먹고당진서특이동히알파문와절이흐고오장에양식디히나르다바물의아이시서밥을흐나모든냥반들피란흐니거리의물을나가기려오되우리헝츠느거리도업고그릇도업스니흐그릇물도어더문머그나듀야의산성을브라통곡흐고저막움의츠마나를디내니인칭이언메나흐고구들슨인명이니아디몬계라일사이흐즈식을다업시코참혹흐여설워흐터니이때는다니저다만산성을싱각고망국동의나라이리되신이틀부녀의아를일이아니로되엇디아니통곡々々흐리오.(남평 조씨, 『병자일기』, 박경신 역주, 203쪽~204쪽)

자가 “통곡”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지만, 그녀의 기술은 자신이 겪고 있는 전란과 피란의 고통과 눈앞에 닥친 비극적이고 비상적 상황에 대해 이를 대하는 자신의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상황 그 자체를 객관적 입장에서 기록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이는 피란체류기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태도와 변별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피란체류기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태도와 변별되는 것이기도 하다.

(ㄴ) 피란체류기의 화자는 자신의 감정적 상태를 자주 드러낸다. 화자는 ‘아득하다, 서글프다, 안타깝다, 슬프다’와 같은 표현을 주로 사용하면서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구체적이면서, 장황하게 서술한다. 이 태도는 주로 남편과, 부모, 자식들과 관련되어 있다. 화자가 여산과 충주에서 체류할 때 남편은 심양에 억류된 상태였다. 게다가 시부모, 부모, 다섯이나 되던 자식들, 며느리 둘마저 병자호란 전에 이미 없었다. 그녀의 슬픔과 아득함은 유일한 의지처였던 남편마저 절명의 위험에 처한 것, 그리고 피란지에서 홀로 죽은 부모와 죽은 자식들과 죽은 며느리들의 생일과 제사를 맞이하는 것에 기인한다. 화자는 앞서 간 이들의 기일 전후로, 그들과 남편을 꿈을 통해 반복적으로 소환함으로써 자신의 극대화된 부정적인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다. 심양에 억류된 남편과 관련된 일이 화자의 일과에 영향을 미치면서 화자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하고, 죽은 가족들에 대한 화자의 감정표출을 빈번하게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란체류기의 화자는 심양에서 귀국하지 못한 남편을 매개로 죽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주변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감정적 태도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ㄷ) 서울귀환기에서 확인되는 『병자일기』의 주요 내용은 접빈객, 봉제사 및 남편의 출퇴근, 업무, 방문지와 같은 남편의 하루 일과이다.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화자는 ‘남편이 ~에 좌기하시고 늦은 시간에 들어왔다’는 동일한 내용을 9일간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에 비해, 화자나 그밖의 인물들의 감정적 상태를 길게 서술하는 경우는 드물다. 친지의 경조사에 대해서도 간단히 기록할 뿐이다. 다만 화자의 죽은 자식과 며느리의

생일이나 기일에 화자의 감정 표출이 강하게 드러난다. 말하자면 남편이나 그 밖의 사람들은 화자의 감정 표출 대상에서 제외되고, 감정 표출의 대상은 죽은 가족들로 한정된다.

정리하자면, (ㄱ) 피란도중기에서는 감정을 절제하고자 하는 태도가 강하며, (ㄴ) 서울 귀환기에서는 화자의 감정 표출이 미약하며, (ㄷ) 피란 체류기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감정적 상태를 드러낸다. 피란 도중기에서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기술하기보다는 상황 설명을 통해서 화자의 감정적 상태를 간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한다. 피란 체류기에서는 죽은 가족을 비롯하여 살아 있는 남편 및 친지에 대해서도 자신의 감정적 상태를 적극적으로 드러낸다. 서울 귀환기는 죽은 자식과 며느리에 대한 감정만이 주로 기술된다.

### III. 『병자일기』의 시간 인식과 화자 유형

『병자일기』의 연구자들은 『병자일기』를 전쟁의 체험과 일상적 생활을 사실적으로 기술한 실기류로 규정한다. 한편으로는 사가 부녀자가 병자호란이라는 정치적 사건을 기록한 대규모 작품, 병자호란이라는 국가 위란 시기에 대한 양반 부인의 피난 여정의 생생한 기록, 역사의 소용돌이를 증언하는 전쟁 체험기 등으로 평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일상생활의 주변에서 일어난 잡다한 일들을 기록한, 주체적 생산자이자 인간 경영자로서의 조선 여성을 모습을 볼 수 있는, 가정일지적인 성격과 내면일지적인 성격을 동시에 지닌 기록으로 평가한다. 전자는 『병자일기』를 피란 가는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험난한 여정이 담긴 생생한 체험 일기로 평가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양반가 노부인의 규모 있는 일상적 삶의 기록이라는 관점에서 『병자일기』를 평가하는 것이다. 3년 8개월의 기록 중 1년 6개월은 피란과 피란지의 기록이라면 2년 2개월은 서울 귀환 후 생활에 대

한 기록이므로, 『병자일기』에 상반된 평가를 내리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

본 논의의 출발은 이러한 상반된 요소가 『병자일기』라는 하나의 텍스트에 존재한다는 그 자체에서 출발한다. 『병자일기』에서 이 두 가지 요소를 기술하는 태도에는 미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기록의 상황이 전란이나 일상이냐는 점에만 귀결시킬 수 없다고 본다. 이에 필자는 일기라는 장르적 특성인 ‘시간’과 관련지어 『병자일기』를 새롭게 재단해보고자 한다. II장에서 살핀 바에 따르면 『병자일기』에 드러난 시간은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시적으로 명확히 드러난 첫 번째 부류는 경험적 시간이다. 이 시간은 화자의 경험에 의해 분류되는 시간으로 매일 혹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일상적 시간과 간혹 특별히 발생하는 비일상의 시간이다. 전자는 남편의 일과 및 접빈객과 봉제사와 관련된 시간들이며, 후자는 자식과 부모 친인척을 잃는 시간, 바닷물에 쌀을 씻어 밥을 먹는 피란의 시간과 피란지에서 억류된 남편을 걱정하는 시간들이다.

두 번째 부류는 개념적 시간으로 기술의 내용에서 발견되는 시간이다. 『병자일기』는 매일 기록하는 형식의 글로, 대체로 기록 내용 속의 행위 시간(이하 행위시간)과 일기를 기록하는 시간(기록시간)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런데 간혹 일기에는 화자가 과거의 일을 회상하거나 과거의 상황을 꿈으로 재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행위시간과 기록시간을 별개의 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부류는 관계적 시간, 기술하는 대상과 화자와의 관계로 구별되는 시간이다. 일상적으로 『병자일기』의 화자는 사대부의 여성으로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어 있다. 일상적 상황인 서울귀환기에 기록된 내용들은 대부분 집안과 남편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로 본다면 일상적 상황에서 화자의 공적 활동은 남편과 가문을 통해서 수행되며, 개인의 사적 활동은 가시화되지 않는다. 전란과 피란의 시간은 화자가 남편의 부재를 감당하면



서 대외적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 시기의 화자는 스스로 공적 시간의 주체가 된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는 공적 시간에 의해 규제되었던 사적 시간이, 화자 스스로 공적 시간의 주체가 됨으로써 사적 시간을 해방하기도 한다.

정리하자면, 『병자일기』의 시간은 경험적 시간인 일상과 비일상의 시간, 개념적 시간인 과거와 현재의 시간, 관계적 시간인 공적 시간과 사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병자일기』의 세 부류의 시간들은 각기 얹혀 화자의 재현 태도를 구획한다. 일상적 시간과 비일상적 시간은 그것이 과거의 상황인지 현재의 상황인지, 사적인 대상에 대한 것인지, 공적인 대상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화자의 태도가 구별되는 것이다. 『병자일기』를 기록하는 화자는 기술된 행위를 수행하는 행위자이면서, 이를 기술하는 서술자이다. 행위자와 서술자가 통합된 경우에는 텍스트의 행위자가 수행하는 일 및 텍스트 내적으로 지각 가능한 현재적 경험에 대해 기술하고, 행위자와 서술자가 분리된 경우에는 텍스트의 행위자가 수행하고 있는 현재적 경험 그 이상을 기술하면서 텍스트 내적으로는 지각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표현한다. 전자의 경우는 동종화자로, 후자의 경우는 이종화자로 명명할 수 있다<sup>17)</sup>. 『병자일기』에 기록된 시간들과 화자의 특성에 따라 표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7) 최용호의 『서사로 읽는 서사학-인지주의 시학의 관점에서』(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9, 197~207쪽)에서는 영화의 스토리를 재현하는 서술자를 인물과 서술자의 관계에 따라 ‘동종서술자, 이종서술자와 ‘인물초점화자, 서술자초점화자’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지만, 『병자일기』의 경우에는 텍스트에 제시된 기술내용과 화자태도와 관계로 바탕으로 ‘동종화자, 이종화자’, ‘경험주체 화자, 인지주체 화자’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표 4] 『병자일기』의 시간 인식과 화자 유형

	개념적 시간		관계적 시간		경험적 시간	
	현재	과거	공적	사적	비상	일상
피란 도중	전쟁의 위협 생사의 위협 의식주 문제 남편과의 분리	자식들의 죽음	남한산성 (나라) 걱정 (남편과의 분리)	자식들의 죽음	피란지로 이동	X
화자	동종화자	이종화자	동종화자	이종화자	동종화자	X
피란 체류	남편과의 분리 생계의 문제	자식들의 죽음	X	심양의 남편 자식들의 죽음	심양의 남편 자식들의 죽음	제사·다례
화자	동종화자	이종화자	X	동종·이종	동종·이종	동종화자
서울 귀환	X	자식들의 죽음	남편의 일정	자식들의 죽음	자식들의 죽음	제사·다례
화자	X	이종화자	동종화자	이종화자	이종화자	동종화자

『병자일기』의 화자가 문제적으로 인식하는 사건은 이 세 종류의 시간에 모두 존재한다. 『병자일기』에 드러난 중대한 두 문제는 일반적인 시간 개념으로 본다면 과거와 현재에 개별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과거의 시간 중에 비일상적 시간은 자식들의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현재적 시간 속에 비일상적 시간은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이 둘 중 전자는 사적 시간, 후자는 공적인 시간과 관련된다. 정리하면, 화자에게 자식의 죽음은 과거이면서, 사적이면서, 비일상적 시간의 사건이다. 화자에게 병자호란은 현재이면서, 공적이면서, 비일상적 시간의 사건이다. 특히 이 시간들을 기술하는 화자들은 현재와 과거, 사적, 공적, 일상과 비일상의 시간을 구분하면서, 『병자일기』 화자의 세계관과 지향점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다.

표4에서 확인되는 『병자일기』의 두 화자는 각기 다른 시간에 활동한다. 개념적 시간에서 현재의 화자는 동종화자이고, 과거의 화자는 이종화자이다. 피란 도중을 기술하는 화자, 피란 체류 중에 일어난 일을 기술하는 화

자, 귀환 후 일상을 기술하는 화자는 동종화자면서, 자식들의 죽음을 떠올리고 부재하는 사람들을 기술하는 화자는 이종화자이다.

동종화자와 이종화자는 대상을 향한 기술방식도 차별화한다. 화자에게 1차 피란지인 여산에 도착하기까지, 전란의 상황을 뚫고 체류 장소로 이동하는 일은 참으로 험난하고 힘겨운 일이었을 것이다. 화자 남편 남이웅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란은 “짐붙이는 생각지도 말고, 밤낮 가리지 말고 가”야 하는 위급한 상황으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화자는 이 위급한 순간을 시간적 순서대로 정리하고 있다. 피란지로 이동하는 상황이나 사람들이 수행한 행위를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동종화자를 등장시켜 현재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관계를 객관화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이는 일상 시간의 준거인 서울귀환기를 기술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시간이 일상이든 비일상이든, 화자에게 현재적 시간이면서 공적 시간으로 인식되는 시간의 경우에는 동종화자를 통해 기록적 태도로 기술한다.

(정축 1월 17일) 마음속으로 참으며 날을 보내니 살아 있을 날이 얼마나 되랴. 그래도 길진 것이 사람의 목숨이니 알지 못할 일이다. 한 번에 자식을 다 잃었고 참혹하여 서러워하더니 지금은 다 잊고 다만 남한산성을 생각하는가? 망국 중에 나라가 어떻게 된 일을 부녀자가 알 일이 아니지만 어찌 통곡하고 통곡하지 아니하리

정축년 피란 중의 화자 통곡하고 통곡한다. 이 통곡은 전란과 망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화자의 통곡은 전란과 망국 고통을 자식을 잃은 자신의 사적 참혹함과 연결한다. 이것은 화자가 자신의 감정적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서 과거를 환기하고 서술하기 위해서 이종화자를 대동한 것처럼 보인다. 화자는 자식과의 사별과 그 끝없는 서러움을 지속적으로 감정적으로 서술한다. 남편이 없었던 피란 시에 이종화자는 다른 시기에 비해 더 자주 출현한다. 『병자일기』는 이종화자를 통해 과거의 사

적이고 비일상적인 이 문제적 시간의 아득함과 설움을 토해내는 것이다.

정축년 10월2·3일) 맑았다. 별좌의 제사를 지내니 나의 설움이야 끝이 없으니,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으랴. 제를 지낼 사람도 없어서 남진사와 조창하가 제사에 참례하였다. 신주를 보니 숨이 막히는 듯하고 정신이 아득하기만 하다. 세월이야 흘러가지만 어느 때 어느 날에나 잊을까? 어여쁘던 얼굴이 생생하여 그리운 일만 생각하면 간담이 쪼개지는 듯, 베어지는 듯... 아이고, 꿈에나 나타나 보이려므나, 타이르고 눈물을 흘리며 지내나 꿈에도 한번 분명히 보이지 않으니 제 잘못이로다. 저인들 정령이 있으면 늙은 어미를 생각하지 않으랴마는 유명이 달라서 그런가 하여 더욱 설워한다. 장차 벌써 오년이 다 되어가니 흐르는 세월이 누구를 위하여 머무랴.

기묘년 10월3일) 맑았다. 별좌의 기제사를 지내니 계유년의 일이 새롭게 생각나서 그지없는 감정과 회포를 말로 다하랴. 어느 사이에 벌써 칠년이 되었는가? 젊은 사람 신주 셋에게 제사를 지내게 되니 서러움을 어찌 말하리. 불쌍하다 내 아들, 아까울사 내 자식 꿈에도 아니 보이니 나를 잊었는가? 다시 누구 집의 자식이 되었는가? 어찌 한 번도 아니 보이는가? 마음을 태우며 서러운 정을 매일 품고 지내나 겉으로는 항상 즐거운 사람같이 지내니 제 정령이 나를 잊었는가 생각하는가? 더욱 서러워한다.

『병자일기』를 읽는 독자들이 전란의 고통과 참척(慘慼)의 고통을 경험한 조선 양반여성을 재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재현 과정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동종화자가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객관화된 역사적 경험이다. 이 역사적 경험은 일상적 행위와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형상화됨으로써 읽는 독자에게 병자호란이라는 잠재적 실재를 환기시킨다. 이 잠재적 실재는 독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 및 정보 혹은 감정적 상태를 말하며, 이것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의미적 기저를 구성한다.<sup>18)</sup>(각주18번위치) 말하자면 병자호란에 대한 기존의 정보와 병자호란을 직접 경험하는 동종화자를 결합함으로써, 독자는 화자가 제공하는 기

록적 정보를 객관화된 경험으로 인식하고 화자가 기록하는 참혹한 상황에 몰입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는 이중화자가 주관적으로 기술하는 참척의 고통이다. 자식이 다섯이나 있었다는 텍스트의 정보와 그들의 생일이나 기일에 자주 출현하는 이중화자는 화자의 사적 경험을 형상화한다. 이 사적 고통을 서술하는 이중화자는 사건을 객관적인 정보나 기록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상황에 대한 당시의 감정이나 현재의 심정을 폭발적으로 드러낸다. 이때 독자는 화자의 사적 감정을 의미적 기저인 정보를 통해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먼저 죽은 부모에 대한 일반적 연민에 의거하여 화자에게 동조하게 된다. 『병자일기』는 전란과 참척이라는 두 유형의 고통을 각각의 시간 인식과 화자의 유형을 통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 IV. 결론

남평 조씨의 『병자일기』는 뜯어볼수록 규정하기 어려운 텍스트이다. 역사의 소용돌이를 생생하게 증언하는 전쟁 체험기라고 평가하자니, 생생함을 구성하는 요소를 명확히 도출하기가 쉽지 않고, 또 일상의 잡다한 일에 대한 기록으로 규정하자니, 과거의 슬픔이 지속적으로 서술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이 문제를 텍스트에 기술된 내용과 이를 기술하는 태도에 기인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화자가 인식하는 시간을 토대로 텍스트의 화자와 기술방식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병자일기』 속의 시간을

---

18) 인지언어학의 정신공간이론에서는 ‘의미적 기저’를 ‘기저 공간’으로 표현한다. 이 기저 공간에 새로운 공간들이 접속하여 언어 및 텍스트를 의미화하는 정신공간을 구축한다고 본다. 필자가 ‘기저 공간’을 ‘의미적 기저’로 변형하여 사용한 것은 논의의 중심이 되는 ‘시간’ 개념과 결합되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정신공간이론에 대해서는 김동환, 「제6장 정신공간이론」(『인지언어학과 개념적 혼성이론』, 박이정, 2013, 247~276쪽)과 임지룡, 「제2장 Gilles Fauconnier: 정신공간이론」(이기동 편저, 『인지언어학』, 한국문화사, 2000, 35~62쪽)을 참고하였다.

과거와 현재라는 개념적 시간, 사적이거나 공적 시간인 관계적 시간, 일상과 비일상이라는 경험적 시간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 시간들은 텍스트 내적 행위자인 동종화자와 행위와는 분리된 이종화자로 분배되면서, 현재의 일상적·비일상적 시간과 공적 시간을 기술하는 화자와 과거의 비일상적 시간과 사적 시간을 기술하는 화자로 재통합된다. 나아가 동종화자는 일상적 시간과 공적 시간을 기록적으로 보여주고, 이종화자는 주기적 시간과 사적 시간을 서술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일상과 비일상을 통합적으로 재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병자일기』가 비일상적 역사와 일상적 생활로 이분되는 텍스트가 아니라, 역사와 개인의 비일상적 시간들이 역사와 개인의 일상적 시간 속에 구현된 통합적 텍스트임을 보여준다.

## 참고문헌

- 남평조씨, 『병자일기』, 역주 박경신, 나의시간, 2015.
- 김동환, 『인지언어학과 개념적 혼성 이론』, 박이정, 2013.
- 김보현, 「<규한록>의 발화지향에 관한 해석의미론적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1-3,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7, 149~171쪽.
- 김선현, 「<산성일기>의 서술 특성 연구」, 『泮橋語文研究』 43, 반교어문학회, 2016, 199~229쪽.
- 문희순, 「남평 조씨 3년 9개월의 가정과 인간경영-『병자일기』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75, 한국언어문학회, 2010, 313~357쪽.
- 박경신, 「<병자일기> 연구」, 『국어국문학』 104, 국어국문학회, 1990, 157~177쪽.
- 박경신, 「『병자일기』에 나타난 17세기 중엽 사대부집안 제사의 양상과 의미」, 『진단학보』 127, 진단학회, 2010, 99~129쪽.
- 박근필, 「『병자일기』 시기 남이옹가의 경제생활」, 『농업사연구』 3-1, 한국농업사학회, 2004, 49~78쪽.
- 안숙원, 「역사의 총체성과 여성담론-남평曹氏의 『丙子日記』를 대상으로」, 『여성문학연구』 2, 한국여성문학회, 1999, 191~227쪽.
- 이기동 편저, 『인지언어학』, 한국문화사, 2000.
- 이서희, 「병자호란 실기 서발류의 특징과 의의」, 『어문논집』 77, 민족어문학회, 2016, 41~68쪽.
- 이연순, 「한·일 고전 여성 일기문학의 최초 작품 비교 고찰 - 병자일기와 청령일기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26, 한국문화연구원, 2014, 51~71쪽.
- 임지룡, 『인지의미론』, 탑출판사, 1997.
- 장경남, 「병자호란의 문학적 형상화 연구 - 여성 수난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1-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3, 193~218쪽.
- 정우봉, 「남평조씨 『병자일기』의 성격과 작품 공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219쪽.
- 정우봉, 「19세기 여성일기 『병인양란록』의 작가와 작품세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6,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3, 161~193쪽.
- 조혁연, 「『병자일기』에 나타난 17세기 전기의 私奴婢」, 『중원문화연구』 21,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13, 151~178쪽.
- 최배영, 「조선후기 생신다례에 관한 연구 - 『병자일기』와 『무오읍혈록』을 중심으로」, 『차문화·산업학』 33, 국제차문화학회, 2016, 281~324쪽.
- 최용호, 『서사로 읽는 서사학-인지주의 시학의 관점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9.

## The time recognition and the descriptive method of *Byungjailgi*'s Speaker

Kim Bohyun

*Byungjailgi* is a diary written by Nampyeong Cho, from 63 to 67 years old, 3 years and 8 months. The contents of the diary consist of the journeys to escape from the Byeongjahoran, her life in the evacuation site, and her life with her husband after returning to Seoul. I want to see the processes by which *Byungjailgi* means some tragic experiences, by analyzing how the objects are described in the text and the speaker's attitude toward them. In Chapter 2, I categorized the contents of *Byungjailgi*, and In Chapter 3, I compared the speaker's perception of time, the speaker's type, and the speaker's method of expression. As a result, the times of the text could be divided into conceptual (past and present), relative (private or public), and empirical (routine or non-routine). These times are integrated into two speakers, one describes the current routine, current non-routine, and public time, and another describes the past non-routine and personal times. Among these speakers, the homogeneous speaker records daily and public time, while the heterogeneous speaker describes periodic and private time.

This discussion shows that *Byungjailgi* is a text in which the non-routine time of history and individual is implemented in the routine time of history and individual.

Keywords : *Byungjailgi*(병자일기), routine, non-routine, homogeneous speaker, heterogeneous speaker, cognitive

투고일 : 2018. 05. 21. / 심사일 : 2018. 06. 08. / 심사완료일 : 2018. 06. 13.